

나무의 마음

April 2019 | 설미현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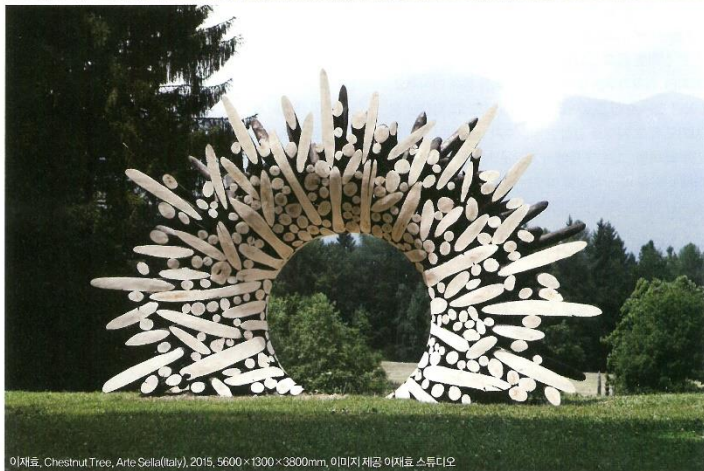
page 1 of 8

FEATURE

나무의 마음



이제료, Chestnut Tree, Private Collection (Mexico), 2014, 3500×3500×3500mm



이제료, Chestnut Tree, Arle Sella (Italy), 2015, 5600×1300×3800mm, 이미지 제공 이제료 스튜디오

“모양이 제각각 다른 자연 그대로의 나뭇가지들은 구나 원기둥과 같이 단순한 형태 속에서도 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다. 이것은 작품을 통해 내 생각을 표현함이 아니라 재료 자체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 즉 내 생각이 아닌 나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재 효

그는 30여 년을 나무와 함께했다. 조각가 이제효. 나무, 돌, 낙엽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은 그에게 온전한 재료가 되었다. 원통, 반구 등 그의 조각에는 공통적으로 '구(球)' 형태가 등장한다. 나무 혹은 돌이 품은 에너지를 가장 단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제효에게 '구'는 그런 존재다. 본연의 자연, 그의 조각에서 심을 청하게 되는 이유다.

한 그루의 나무에도 거대한 혼이 존재한다. 4월,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예술가의 영혼 속에 깃든 나무를 소환했다. EDITOR SEOL MI HYUN



Ugo Rondinone, Spring Moon, 2013/14, Abguss in Aluminium, Weiss Lackiert Circa. 580 x 500 x 60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박준형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내 작업 중 200년 된 올리브나무를 헐벗은 그대로 캐스팅해 응축된 시간을 기념하고자 한 설치 작품이었다. 관람객은 캐스팅된 올리브나무를 통해 바람이 빚어낸 나무 형태, 축적된 시간 등 생(生)을 추상하며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우 고 론 디 노 네

작은 새, 죽어가는 나무 등 소외된 것들에 관심을 가져온 그, 2015년 그는 오래된 올리브나무를 뜯어내 조각 작품을 선보였다. 흰색으로 칠한 고목 형태 조각은 타임캡슐처럼 시간의 흐름을 담아냈다. 거대한 크기의 확장, 소외된 고목은 그 순간 영험한 나무로 탈바꿈한다. 이 작품은 국제갤러리에 영구 설치되었으며, 5월 이곳에서 그의 개인전이 열린다.

강홍구, 녹색 연구-물, 117×112cm, 피그먼트 프린트에 아크릴, 2011, 이미지 제공: 관연재이 갤러리



“내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녹색 연구라는 연작의 일부이다.
특히 4월 말과 5월 초에 새 나뭇잎이 한창 돋아날 때의
경이로움과 감탄을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한 결과물이다.”

강 홍 구

작품 속 나무는 귀퉁나무로 5월 초 작은 흰 꽃이 가득 필 무렵 가장 환상적이다. 그는 사진 위에 색을 칠함으로써 그 순간의 개인적인 해석과 느낌을 담아낸다. 강홍구, 그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장소, 사물 등을 카메라로 포착해왔다. 사진과 그림의 묘한 경계. 이 때문일까, 그의 작품은 섬뜩한 현실과는 별개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그 ‘살의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장욱진, 무제(Untitled), 캔버스에 유채, 45.7×35.5cm, 1968,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소장



“나는 심플하다. 술 먹은 죄밖에 없다!”

-<장욱진 나는 심플하다> 중에서-

장욱진

화가 장욱진에게 '나무'는 자연 그 자체로, 단순한 실을 추구했던 그의 철학이자 이상 세계일 것이다. 이 작품 역시 더없이 단순하다. 하늘과 동그란 나무, 까치와 저 멀리 있는 집. 소박한 화면 속에서 파랑과 빨강의 대비 효과가 경쾌하다. 원래 나무 뒤편에 자리하던 집이라는 소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의 '뒤'가 아닌 '앞'쪽에 자리하게 됐다고, 해와 달, 까치, 집이 어우러진 소박한 일상. 나무는 그가 운데에 마치 수호신처럼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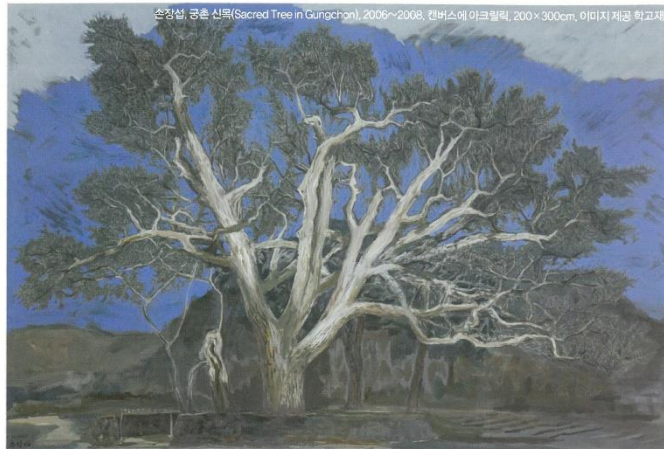
"나무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를 떠올리게 한다.
굳이 셀 삼버스터린이 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무는 우리의 부모와 닮은 점이 많다."



김운호, 플라타너스, 120×170cm, Digital C-print, 2018, 이미지 제공 원앤케이 갤러리

김 운 호

전 세계 관광객이 타고 온 관광버스를 1년 내내 찍은 '1000대의 버스', 정형화된 풍경 사진에 조명을 설치해 촬영한 '사진전' 시리즈 등 그의 작업은 획일화된 일상을 낮설게 환기한다. '고목', '플라타너스'는 '사진전'의 연장으로, 대상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는 보편적인 사진에서 벗어나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자세히 보는 것만으로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제작했다.



“나무는 사계절을 겪은 후 모든 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았을 때 비로소 본질을 드러낸다.
본질로 회귀한 후에야 새로운 새싹을 틔울 수 있다.”

손 장 섭

1980년대 민중미술을 이끈 그, 손장섭은 2000년대 이후 전국 산하를 누비며 오래된 고목을 찾아 그리기 시작했다. 작가 특유의 푸른색 하늘 아래 고요하지만 역동적인 나무가 자리한다. 마을을 지키는 흰색 신목(神木)은 자연의 신성함과 민족의 순수성을 상징한다. 수백 년간 한자리를 지켰은 고목, 서늘하고도 강렬한 기운이 느껴진다. 민중이라는 단어도 겹쳐진다.



“이것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표지이다. 때에 따라 변화할 테지만, 아직까지 목재가 가진 표지로서의 기능은 유효하다. 우리가 목재를 볼 때 떠오르는 손의 기억과 그 무늬가 간직한 회화성은, 익숙한 표지이자 규칙적 움직임에 반대의 어떤 것까지 연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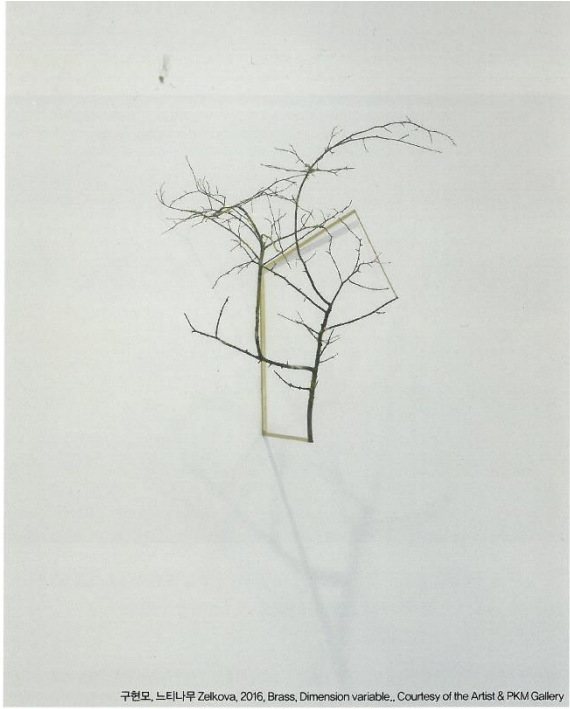
양 정 욱

일상 이면의 풍경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양정욱.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재현한 '대화의 풍경', 굵긴 관계를 담은 흔적들로 재구성한 '이제는 만나지 않는 친구들' 등 그는 일상의 이야기를 친숙한 소재로 담아낸다. 그는 이번 이야기의 표지로 손의 기억을 품은 목재를 사용했다. 물론 그의 '이야기'에 따라 재료와 매체는 늘 가변적이다.

“한 번을 기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뻗어가는 이 구조물은 죽어있고 살아 있으며 움직이지 않고 움직인다. 비결정적인 결정론자이자 유일하지만 보편적 독창성을 갖고 있다. 나무는 이 모순된 공존 그 자체가 그것의 현현이다.”

구 현 모

구현모의 '느티나무'는 실제 나뭇가지가 아닌 주물 작업으로 완성한 활동 작품이다. 그는 인간의 가공품이 일상의 자연이 되는 '후천적 자연의 시대'에 인공과 자연의 구분이 여전히 유효한 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는 작품 '느티나무'를 통해 시간성보다는 모양(구조), 생성 방식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한다. 과연 이 나뭇가지는 살아 있는가, 아니면 죽었다 말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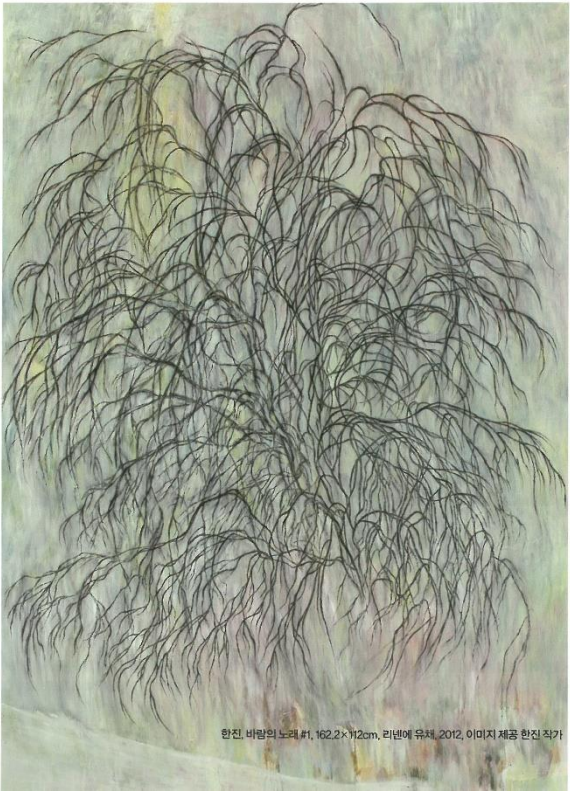


구현모, 느티나무 Zerkova, 2016, Brass, Dimension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 PKM Gallery

“나무는 겹과 겹의 공간을 이루는 시작점이자 오랜 시간 영향을 준 실체는 소거되지만 남겨진 흔적들이 응집된 대상이다. 또한 기억된 이미지들을 변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선율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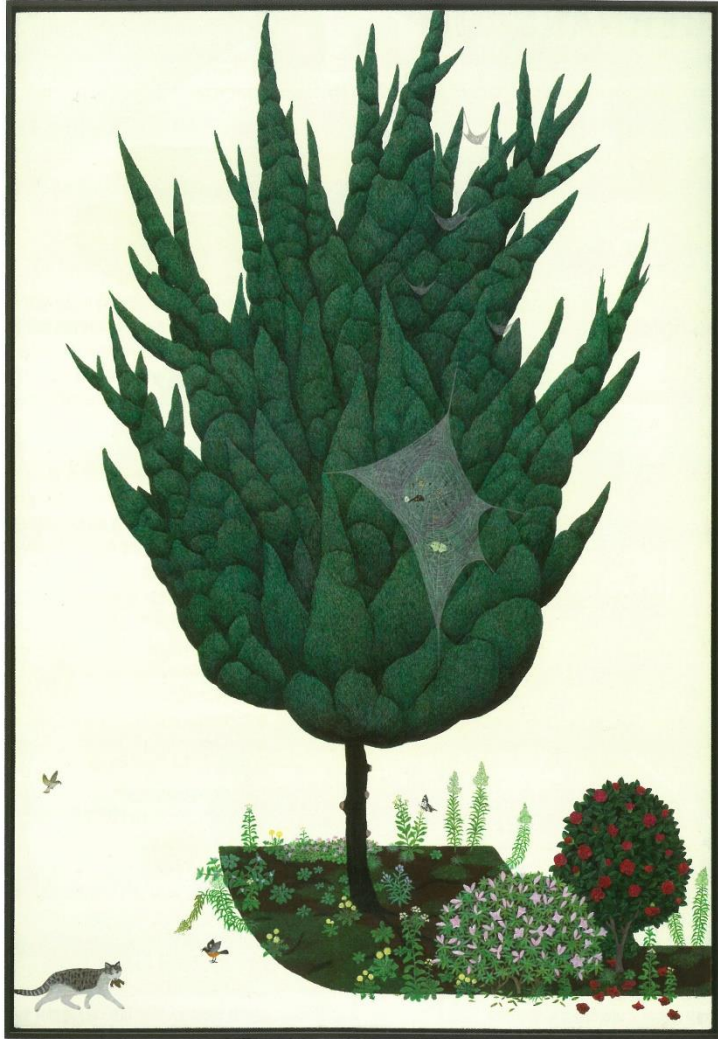
한 진

그의 나무는 장엄함, 강인함과 거리가 멀다. 유화, 연필화 작업을 하는 작가의 특성 때문일까, 그의 나무는 연필화의 섬세함 또한 갖는다. 작가의 화면은 일상의 소재지만, 공간감을 넘어 청각적 질감을 내포한다. 그는 대상이 가진 고유 의 형태와 질소성보다는 대상의 움직임 속에 느껴지는 흐름에 더 집중한다. 그 때문일까, 그의 나무에선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한진, 바람의 노래 #1, 162.2x112cm, 리본에 유채, 2012, 이미지 제공 한진 작가

문성식, 무심한 교차, 2018, Acrylic on Canvas, 117×8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01이지 제공 국제갤러리



"도시 내부에선 구석구석 미물들의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의 향나무 뒤에 혼한 삶도 혼한 죽음도 있음을 새삼 느끼는 봄이다."

문 성 식

그의 회화에 흐르는 기조는 이렇게 축약된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들의 살림살이와 몸부림에 대한 처연함과 가련함. 세상에는 삶과 죽음, 자연의 섭리, 인간사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해 그것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그는 다만 작은 한 인간으로서 카오스 같은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자신의 의식으로 정리해낸다. 작품 속 나무에서도 그의 몸부림이 읽힌다. [X]